

제19회 회문산 해원제 개최

순창군, 구림면 회문산 비목공원 위령탑에서 해원·화합·평화통일 염원

해원·화합·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제19회 회문산 해원제가 지난 22일 구림면 회문산 비목공원 위령탑에서 열렸다.

회문산 해원제는 6.25 한국전쟁 당시, 순창군 구림면 회문산을 중심으로 순직한 호국영령과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의 명복을 기원하는 행사로, 순국선열과 6.25 전쟁 희생 양민들의 넋을 기리고 지역민들의 화합을 도모

하기 위해 매년 열고 있다.

회문산 제전위원회와 구림면 청년회의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최영일 군수를 비롯해 박희승 국회의원, 신장이 의장, 구림면 기관·사회단체장, 보훈회원, 청년회원, 유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헌화와 분향으로 시작한 행사는 추모사, 추모공연 순으로 이어졌으며, 특

히 이날 청년회원 김현근의 헌시 낭송과 추모공연, 비목 노래 제창으로 행사 분위기는 한층 더 깊어졌다. 마지막으로 폐회를 선언하며 행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해원제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순국선열과 희생된 양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들의 희생을 되새기며 지역사회 화합의 중요성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추념사에서 김윤식 회문산 제전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순국선열과 6.25 전쟁의 양민 희생을 기리기 위한 자리이며,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이다"면서 "이번 해원제를 통해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고, 지역민들의 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행사에 함께한 최영일 순창군수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와 번영은 순국선열과 희생 양민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다시는 가슴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마음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19회 회문산 해원제 가 지난 22일 구림면 회문산 비목공원 위령탑에서 열렸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국장급 2인 영예로운 퇴임

이남재 행정문화국장 김종민 복지환경국장

임실군에서 탁월한 행정역량과 대내외 소통과 협력을 발휘하며 '임실 군정의 터줏대감' 으로서 든든한 역할을 해 온 국장급 2명이 영예롭게 퇴임했다.

심 민 군수는 지난 21일 6월 30일자로 공직 생활을 마감하는 이남재 행정문화국장장과 김종민 복지환경국장의 영예로운 퇴임을 축하하며, 그동안의 공로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공로패를 전달했다.

이남재 행정문화국장은 지난 1986년 공직에 입문한 후, 의회사무과장, 농업정책과장, 문화관광치즈과장, 기획예산실장으로서 군정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국가예산확보 등을 수행하는 등 탁월한 행정력과 추진력을 발휘했다는 평이다.

특히, 의회사무과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장으로 재직 당시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역할을 다하

였고, 농업정책과장 재임 시 농업축산 분야에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여 국도비 공모사업 등을 통해 임실군 농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또한, 기획예산실장으로 재직할 기간에는 군수공약사항, 주요 핵심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한 업적을 인정받아 지난 2020년 1월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했다.

이후 복지환경국장장 행정문화국장을 역임하면서 임실N치즈축제, 임실치즈페스티벌, 옥정호 등의 관광개발과 각종 지역발전 정책을 펼치며, 임실군 성장을 이끌었다.

지난 2007년 국가사회발전우수공무원 국무총리 표창, 장관표창, 도지사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며 그동안의 업무역량과 성실함을 인정받기도 했다.

김종민 복지환경국장은 1989년 신덕면에서의 근무를 시작으로 35년간 공직에 몸담았다. 기획감사실과 행정지원과, 재무과 등 주요 부서에서 근무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2017년 3월



사무원으로 승진, 관촌면장과 민원봉사과장, 체육청소년과장, 행정지원과장, 기획감사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후 우수한 행정력을 인정받아 2022년 7월 서기관으로 승진, 복지환경국장을 끝으로 명예 퇴임했다.

특히, 2008년에는 오랜 기간 지어진 섬진담배개발 및 정상화 사업의 이주민 이주대책과 보상 업무를 맡아 과감한 추진력으로 주민들과 마찰 없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후에도 계약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운영 정착과 발전에 기여한 바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빈집 매입 추진

올해 20억2000만원·내년 19억 등 시 자체 재원 계획

남원시는 인구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인해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늘어남에 따라 도시미관을 해치고 범죄발생 우려에 따라 도시 주거환경개선 및 재생을 꾀해 빈집 매입에 나섰다.

이를 위해 시는 현수막 게시를 통한 홍보 및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지난날부터 관내 빈집 매도희망자를 모집하였으며, 1차 접수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의뢰한 상태이다.

사업 신청은 빈집 및 부속 토지 소유자가 할 수 있으며, 사업비는 2024년도 20억2,000만원, 2025년도 19억 등 총 39억2,000만원 모두 시 자체 재원으로 계획해 2개년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접수된 빈집은 1차 서류 검토를

통해 해당하는 건에 대해 감정평가 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평가액 기준으로 협의 및 매매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매입된 빈집은 농촌 유휴시설, 도시특화 재생사업, 매입 빈집 리모델링 임대사업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며, 노후도가 심각한 빈집은 철거 후 주차장, 공원, 쉼터 등 부지조성 등을 통해 남원시 정주여건 개선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재롭게 추진되는 빈집 매입사업은 남원시 주거환경개선뿐만 아니라 빈집을 활용한 각종 연계사업 추진에 발판을 마련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2024년 순창군 일자리박람회' 성료

순창군은 지난 21일 장애인체육관에서 열린 '2024년 순창군 일자리박람회'에 구직자 300여 명과 참여기업 48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일자리 잡(JOB)고! 행복 업(UP)고! 희망찬 내일(JOB)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개최한 이번 박람회는 채용상담관, 취업지원관, 체험존 운영 등 다양한 테마로 운영됐다.

군은 이날 박람회에 18개 기업체에 87명의 구직자가 현장 면접에 참여하여 19명이 채용 확정되었고 13명은 2차 면접과 기업의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참가한 18개 기업은 인사담당자가 직접 1:1 맞춤형 현장면접을 통해 채용절차를 진행하였고, 참여하지 못한 30여 개 기업의 채용정보도 같이 홍보하여 구직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 아울러, 부대행사로 퍼스널 컬러 진단, 증명사진 촬영, 직업 타로 체험, 지문 성격검사 등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통한 재미와 경험을 동시에 얻을 수 있었으며, 특히 타로체험 및 퍼스널컬러 진단 코너는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특히, 남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전북신용보증재단도 행사에 참여하여 구직활동 방법 및 서민금융지원 서비스 등 상담을 진행해 구직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은 지난 21일 장애인체육관에서 열린 '2024년 순창군 일자리박람회'에 구직자 300여 명과 참여기업 48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일자리 잡(JOB)고! 행복 업(UP)고! 희망찬 내일(JOB)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개최한 이번 박람회는 채용상담관, 취업지원관, 체험존 운영 등 다양한 테마로 운영됐다.

군은 이날 박람회에 18개 기업체에 87명의 구직자가 현장 면접에 참여하여 19명이 채용 확정되었고 13명은 2차 면접과 기업의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참가한 18개 기업은 인사담당자가 직접 1:1 맞춤형 현장면접을 통해 채용절차를 진행하였고, 참여하지 못한 30여 개 기업의 채용정보도 같이 홍보하여 구직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 아울러, 부대행사로 퍼스널 컬러 진단, 증명사진 촬영, 직업 타로 체험, 지문 성격검사 등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통한 재미와 경험을 동시에 얻을 수 있었으며, 특히 타로체험 및 퍼스널컬러 진단 코너는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특히, 남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전북신용보증재단도 행사에 참여하여 구직활동 방법 및 서민금융지원 서비스 등 상담을 진행해 구직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바이오산업연구원, 화장품 전문성 강화 교육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이사장 최경식, 이하 산업연구원)에서는 남원 화장품기업 및 창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21일 화장품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에 나섰다.

교육에는 남원시 화장품산업 관련 기업 재직자 10여명이 참석, 전문기능성 화장품 제품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기능성 화장품 기획 및 제형 개발교육을 실시하였다.

노암농공단지 남원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이하 NCBC)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기능성 화장품 성분 및 처방 △기능성 화장품 처방 제형 실습으로 진행되어 기업의 실무 역량을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오는 6월 26일과 28일에는 안전한 화장품생산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화장품 미생물 품질관리

실습' 교육이 산업연구원 고진익박사의 강의와 실습으로 진행되며, 내용은 △화장품 품질관리 및 보존제의 이해 △화장품 품질관리 미생물 및 시험법 종류 △화장품 미생물 품질관리 실습(배지제조 및 미생물만도시험) △화장품 미생물 품질관리 결과분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남원시 화장품기업에 재직중이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이나 궁금한 사항은 산업연구원(063-633-860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NCBC 3층에는 화장품기업의 전문성 및 장비활용을 위한 이론교육실, 실습교육실, 제작지원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산업연구원에서는 해마다 남원 화장품 기업에 전문성 강화와 인력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발효관광재단, 순창군 관광 활성화 포럼 개최

순창군 출연기관인 (재)순창발효관광재단(대표 선운숙)이 지난 21일 재단 대회의실에서 순창군 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순창군, 순창발효관광재단 관계자, 순창고추장민속마을 주민, 전주대학교와 관련 유관기관의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가자들은 지역관광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고, 순창 장류축제의 글로벌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의 주요 내용으로는 K-컬처와 지역문화관광 활성화(경기대 이주형 교수) △유네스코 문화유산과 관광 활성화(동서대 문정남 교수) △순창장류축제, 글로벌 축제로의 발전 전략(광주대 안태기 교수) △순창군, 지역연계 관광 활성화 전략(전주대 심우석 교수) 등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종합토론에서는 류인평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김천대 문상정 교수, 원광보건대 소재민 교수, 한양사이버대 박상현 교수, 장남진장흥물축제 장진만 감독, 호남대 김영현 교수, 대구가톨릭대 강상목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순창군의 관광 활성화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졌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문화누리카드 찾아가는 문화장터 운영

임실군이 6월부터 문화누리카드 발급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장터'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문화장터'는 자발적 문화 향유가 어려운 이용자를 위하여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이 이용자 거주 지역을 찾아가 다양한 문화 상품을 판매하는 행사이다.

6월에는 25일 오수면사무소에서 운영하며, 7월 중에는 지사면사무소, 10월 중에는 임실을 행복누리원과 관촌면 체육문화센터에서도 운영이 예정되어 있다.

'찾아가는 문화장터'에서는 공예품, 체육용품, 캠핑용품 등을 구입할 수 있으며 판매 당일 문화누리카드 결제자를 대상으로 현장 이벤트도 진행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